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김유리

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Yoo-Lee Kim(kimy_l@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자료 중 초등학교 1학년 패널 7차년도 자료(중학교 1학년생, 2,002명)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은 돌봄 양육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아탄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밝혔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부모양육태도 | 자기조절학습능력 | 자아탄력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care and parental overprotection perceived by adolescence, their ego-resilienc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or this purpose, a total 2,002 students were selected from the seventh data sets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KCYPS). More specifically, samples were composed of 1st graders in middle schools(n=2,002). As a result, first, the perceived parental car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ego-resilience. Second, the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had effects on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mediated by ego-resilience. But the effect of parental overprotection was less than the effect of parental care. This study implies that parental care attitude and ego-resilience play important roles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 keyword : | Parental Attitude |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 Ego-resilience |

1. 서론

현대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많은 양의 정보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지식을 구조화하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전략적인 학습과정이 요구된다[1]. 이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학습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즉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으로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기초하여 학습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과정을 선택, 조직, 점검하고 조절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방법[2]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업성취를 이루는 중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습득해야 할 능력이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지적능력의 발달로 인해 인지적 기술 및 통제력의 향상과 학습과제를 더 복잡하고 정교화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습전략도 이전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4]. 이런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Bandura를 비롯한 사회인지 이론가들은 자기조절에 관해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되고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측면으로 제한하지 않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5]. 따라서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나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인간에게 가장 밀접

하고 기본적인 환경인 가정환경,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따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시작인 가정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장이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발달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6].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로서의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기 교육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인이다.

Parker, Tupling과 Brown[7]은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대표적인 두 가지 양육태도와 행동은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애착(attachment)은 자녀가 부모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라고 할 수 있으며, 성장기에 획득한 애착의 질은 평생에 걸쳐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8][9]. 부모의 공감적 이해와 돌봄 양육태도는 따뜻함, 지원, 애정을 뜻하고,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기여한다. 반면에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간섭은 자녀의 독립적인 탐색과 자율성을 통제하고 저해한다[7].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민주적이고 돌봄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에 영향을 주며, 보다 우수한 학습전략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0][11]. 이에 반해 부모의 돌봄 부족과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발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기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와 간섭을 하고 있다[14].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비롯된 부모의 과보호적 행동은 자녀의 독립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부모 주도에 의한 학습으로 인해 학업의 자생력을 잃고 있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함양은 중요한 발달과업이자 교육정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가정의 중심이 점차 자녀들로 이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과도한 교육열은 부모의 과잉기대와 통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온 학대나 방임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보호 양육태도이다[15]. 실제로 최근 국제학업성취도 분석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높지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6].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에 임하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와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관심과 지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은 청소년시기 자녀의 인지적, 행동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상황적 요구에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시키는 메타적 능력인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다[17]. 자아탄력성은 좌절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상황에 반응하도록 도우며, 변화강제적인 환경적 요구와 맞닥뜨렸을 때 자아통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힘이다[18]. 이는 주로 환경적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성공을 거두게 하는 힘을 말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의 경우 상황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적 욕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습동기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시기에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심리 정서적 보호기제로 작용할 것이다[15].

지금까지 자아탄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6].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으로도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Masten[20]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형성과 발달을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요인으로 보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은 앞서 살펴본 자기조절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부모양육태도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으로 예측된다.

애착이론에서는 중요한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외부 세계, 타인 및 자아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제시하였다[21].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내적작동모델은 애착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자녀의 사회성, 정서행동 조절능력, 그리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형성된 자아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세 변인 간의 인과성, 즉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돌봄과 과보호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돌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과보호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애착이론에 의하면, 중요한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이 재조직되는데, 이 조직화된 기대를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고 하였다[23].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적작동모델은 부모의 대표적인 두 가지 양육행동, 즉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로 설명될 수 있다. 부모의 공감적인 돌봄은 자녀의 애착행동을 유발시키고,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은 자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탐색행동을 감소시킨다[7]. 이와 같이 성장기 주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애착관계의 상호경험은 내적작동모델 구축에 영향을 주며 한 개인의 사회 및 성격발달, 정서와 행동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22].

애착(attachment)은 생애초기 한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느끼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또한 유아의 자아형성이나 신뢰감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 뿐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애착형성에 대한 욕구는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며, 특히 애착은 위험한 상황에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안전기지(the secure bas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9] 보다 자율적이고 자기조절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자기조절학습능력(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 동기, 행동을 점진, 조절, 통제하는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의미한다[2]. 따라서 효과적인 자기조절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좌절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다양한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24].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선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고[4], 특히 자녀는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지현 외[2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임선아[13]는 민주적 양육태도가 높으면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증가하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Busse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같은 통제행동과 심한 처벌에 의해 유통적인 사고의 발달이 저해되거나 억제된다고 보았고[26], 김선희[27]는 부모의 과보호가 높아질수록 심리적 분리,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자녀를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면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조절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개인 간에 차이가 나타나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한국가정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보면 이 문제를 낙관하기 어렵다. 자녀가 자율적 존재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전에 부모가 하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은 자생적이며 창의적 지식 창출을 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28]. 결국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가정의 분위기 즉 부모양육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18]. 즉 어렵고 힘든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 수준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자아의 동기조절력과 인지적 능력을 내포하는 개념이다[29]. 특히 청소년은 급격한 발달의 변화로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을 경험하며, 이것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에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심리 정서적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30].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환경이나 위기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되고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더 많이 한다[31]. 이러한 긍정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은 특수하고 선천적, 기질적 요인이 아닌, 가족과의 관계 즉 부모의 양육태도, 안정적이고 소통하는 가정 분위기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20].

부모의 공감적 이해와 돌봄의 양육태도는 부모 자녀 간의 지속적인 안정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정서적 돌봄은 자율적 탐색 기회를 촉진시키고 청소년기의 문제해결능력의 증진에 기여한다[32]. Bowlby[9]는 아동의 인성발달에 따른 애착의 순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유아기부터 돌봄에 대한 경험은 탄력적인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통제는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 있는 탐색과 자기조절적인 능력을 저해한다[7].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며[33],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낙관성, 활력성 등 자아탄력성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34]. 반면에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적합할 때 자아탄력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능력이 낮았고[35],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3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상황에 필요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자기를 통제하는 등의 자기조절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주로 학업상황에서 필요한 능력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36]. Snyder[37]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지적 전략들을 세우고 과제수행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동욱 외[19]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자기조절적인 학습습관이 높다

고 보고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은 학습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관계에서도,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인으로 예측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세 요인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두 변인간의 관계와 영향력에 치중하고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 2010)의 초1패널의 7차년도(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당시 중학교 1학년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중학생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청소년 시기로 초등학생 시기와는 다르게 학습량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등 학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자기조절 학습발달의 결정적 시기[4][39]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표본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 표집 방식으로 추적 조사된 자료로, 초기 2,342명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표본 이탈(sample attrition)자 및 설문지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남자 1,039명, 여자 963명의 총 2,002명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2.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허묘연[4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 중 Parker, Tupling과 Brown[7]의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애정(4문항,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등), ‘과잉간섭(4문항,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등)’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해당 양육태도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애정 .830, 과잉간섭 .742로 나타났다.

2.2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an[29]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41]이 번역한 후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내용은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 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887로 나타났다.

2.3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측정은 양명희[42]가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 84문항 중, 김세영[43]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학습에 대한 기본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문항으로 ‘성취가치(7문항, “학교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등), ‘숙달목적지향성(2문항, “나는 실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을 좋아한다”, “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통제(5문항,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 한다”,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등), ‘학습시간관리(4문항,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계획을 세운다”,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

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등)’의 4개의 하위척도로 총 18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성취가치 .900, 숙달목적지향성 .720, 행동통제 .733, 학습시간관리 .844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910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여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돌봄 양육태도, 과보호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잠재변수로 다루고 있으며, 각 잠재변수들은 3-4개의 측정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정상성(normality)확인을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구성요인 간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사용한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의 값을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왜도는 절대값이 3.0, 첨도는 절대값이 7.0미만)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0.266 \sim 0.574$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을 보면, 애정은 자아탄력성과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습시간 관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과잉간섭과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과잉간섭은 자아탄력성, 성취가치, 행동통제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과잉간섭은 숙달목적지향성과 학습시간 관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습시간 관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수 및 기술통계

변인	1	2	3	4	5	6	7
1 양육태도							
2 돌봄과 과보호							
3 자아탄력성							
4 성취가치							
5 자기조절지향성							
6 학습행동통제							
7 능력 학습시간 관리							
최소값	1.25	1.00	1.00	1.00	1.00	1.00	1.00
최대값	4.00	4.00	4.00	4.00	4.00	4.00	4.00
평균	3.29	2.13	3.01	3.19	2.93	2.70	2.61
표준편차	.542	.664	.477	.532	.669	.539	.658
왜도	-.419	.365	.088	-.423	-.120	.137	.037
첨도	-.147	-.100	-.116	.483	-.401	.167	-.197

*p<.05, **p<.01

2. 양육태도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인 [표 2]를 보면, 적합도는

표 2. 양육태도의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비표준화(β)	표준화(β)		
과보호 양육태도	과잉간섭1	1.000	.656		
	과잉간섭2	.788	.529	.042	18.654***
	과잉간섭3	1.006	.709	.045	22.567***
	과잉간섭4	.999	.688	.045	22.302***
돌봄 양육태도	애정1	1.000	.655		
	애정2	1.241	.754	.045	27.488***
	애정3	1.214	.770	.044	27.897***
	애정4	1.371	.791	.048	28.379***
자아탄력성	자아탄력1	1.000	.849		
	자아탄력2	1.057	.876	.022	47.481***
	자아탄력3	1.071	.863	.023	46.676***
자기조절 학습능력	성취가치	1.000	.686		
	숙달목적지향성	1.410	.770	.049	28.700***
	행동통제	1.099	.744	.039	28.017***
	학습시간관리	1.274	.707	.047	26.899***

$\chi^2=602.286.457$, $df=84$, $p=.000$, $TLI=.949$, $CFI=.959$, $RMSEA=.056$

***p<.001

$TLI=.949$, $CFI=.959$, $RMSEA=.056$ 으로 나타났다. 이는 TLI 값과 CFI 값은 .90 이상 기준, RMSEA 값은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 대한 비표준화와 표준화 지수 및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요인부하량(β)은 모두 .529 ~ .876으로 높게 나타나 변수를 측정하는데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경로의 유의수준도 $p<.001$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양육태도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의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모형을 통해 각각의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돌봄과 과보호 양육태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1]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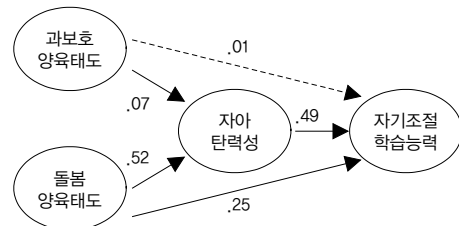


그림 1. 양육태도 구조모형 분석결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돌봄과 과보호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 보았다. 모형 해석에 앞서, 구조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χ^2 검증을 통해 살펴보면, $\chi^2=769.663(df=85, p<.001)$ 으로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점이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확인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44].

표 3. 양육태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P
	비표준화(B)	표준화(β)			
과보호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052	.074	.017	3.064	.002
과보호 양육태도 → 자기조절 학습능력	.005	.008	.014	.353	.724
돌봄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563	.524	.030	18.758	.000
돌봄 양육태도 → 자기조절 학습능력	.223	.248	.026	8.607	.000
자아탄력성 → 자기조절 학습능력	.413	.492	.025	16.485	.000

$\chi^2=769.663(df=85, p=.000)$, TLI=.934, CFI=.946, RMSEA=.063

이에 따라 TLI=.934, CFI=.946으로 확인되어 모두 적합기준인 .9 이상이고, RMSEA 또한 .063으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양육태도의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보호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beta=.074$)은 유의미하였으나, 자기조절학습능력으로의 직접적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돌봄 양육태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경로는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beta=.248, p<.001$)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돌봄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beta=.524, p<.001$)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beta=.49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과보호 양육태도 및 돌봄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과보호 양육태도의 간접효과($\beta=.022$)와 돌봄 양육태도의 간접효과($\beta=.232$)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값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즉 돌봄과 과보호 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표 4. 양육태도 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Lower	Upper
과보호 양육태도 → 자기조절학습능력	.005	.022*	.027	.003	.037
돌봄 양육태도 → 자기조절학습능력	.223**	.232**	.455**	.193	.276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Parker, Tupling과 Brown[7]이 제시한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에 따라 부모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 양육태도모형과 과잉간섭의 과보호 양육태도모형을 통합하여 각각의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각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그 영향력을 밝히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돌봄적 일수록 청소년들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증가하였고,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돌봄 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돌봄과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5][45][22].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습관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선행연구들[19][36]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지각된다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물론 자녀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

키게 되어 결국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더욱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히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은 돌봄 양육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돌봄 양육태도에 비해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으로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과잉 간섭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학업성취 및 수행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학교생활적응력도 낮게 나타났다고 한 연구[47]와 상체의 관점에서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원하고, 한 인격체로서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지나친 지시나 통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경험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어쩌면 부모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한 관심과 배려였을지 모를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긍정적 영향 요인의 크기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중요하지만 정도와 수준의 차원에서 적절한 함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돌봄과 과보호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위기 및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육성해야 할 핵심역량임을 확인하였다. 자아탄

력성은 단순한 요인이기보다 개인적 특성과 외적 보호 요인 간의 총체적 요인으로 중요한 개인내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5]. 또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며 단순히 혼자 발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양육태도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아탄력성 만으로도 청소년기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이 두 요인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인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에 영향을 줄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에 주목하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지금까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유형으로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던 돌봄과 과보호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단일모형에 통합하여 그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인은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친밀한 돌봄의 양육태도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그에 따라 부모에게도 그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도전의 시기이기도 하다. 만약 이 시기에 청소년기 자녀의 외적 내적인 발달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모 역시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48]. 따라서 심리적 갈등과 극적인 변화의 상황에서도 청소년기 자녀에게 적극적 지지와 애정을 주는 돌봄의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불어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증진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전

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척도와 자기보고식 설문문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가 보고하는 실제 부모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는데, 부모의 인식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해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할 경우, 방어적 태도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평가나 관찰법 등을 병행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횡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연령에 따른 발달체적과 변화양상의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 각각의 양육태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의 적극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후에는 부모양육태도를 각각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최정임, 최정숙,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이 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제43권, 제4호, pp.221-244, 2012.

[2] B. J. Zimmerman, “Model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 J. Zimmerman, & D. H. Schunk (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Springer-Verlag, 1989.

[3] A. Wigfield, J. Eccles, and P. R. Pintrich, *Development between the ages of 11 and 25*. In D. C. Berliner & R. C. Calfee(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pp.148-185), NY: Simmmon & Schuster Machmillan, 1996.

[4] S. G. Paris and P. S. Newman, “Developmental aspects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1, pp.87-102, 1990.

[5] 김영민, 임영식,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 pp.273-299, 2012.

[6] 양혜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분노형태,” *사회과학논문집*, 제24권, 제1호, pp.157-177, 2005.

[7] G. Parker, H. Tupling, and L. B. Brown, “A parenting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Vol.52, No.1, pp.1-10, 1979.

[8] M. D. S. Ainsworth and S. M. Bell,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Vol.41, No.1, pp.49-67, 1970.

[9]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Y : Basic Books, 1969/1982.

[10] 정정애,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 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1권, 제3호, pp.1191-1202, 2010.

[11] 최진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제18권, 제1호, pp.1-13, 2014.

[12] 유미영, 홍혜영,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4호, pp.915-937, 2010.

[13] 임선아, “(구조관계모형 검증을 통한)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제27권, 제2호, pp.73-93, 2014.

- [14] 이은경, 이선희,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제22권, 제4호, pp.543-563, 2014.
- [15] 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과보호 양육,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제51호, pp.41-69, 2017.
- [16] 정미경,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발달경향 분석,” 한국영재교육학회, 제10권, 제2호, pp.79-99, 2011.
- [17] 이현주, 권수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에 착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47-355, 2013.
- [18]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Hillsdale, NJ: Erlbaum, Vol.13, pp.39-101, 1980.
- [19] 민동욱, 강한나, 박혜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습습관 간의 관계 : 부모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인간발달중재학회지, 제3권, 제2호, pp.65-79, 2012.
- [20] A. S. Masten,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56, pp.227-238, 2001.
- [21] H. Waters and E. Waters, “The attachment working models concept: among other things, we build script-like representations of secure base experience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8, No.3, pp.85-197, 2006.
- [22] 조용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스마트폰 과용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23]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Y : Basic Books, 1969.
- [24] 김현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0호, pp.30-40, 2017.
- [25] 박지현, 서상완, 정지희, 이사사, 장성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pp.107-126, 2010.
- [26] 신구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7] 김선희, 남녀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모의 과보호, 심리적 분리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8] 송인섭, 현장적용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서울:학지사, 2012.
- [29] J. Block and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 [30] J. Block and J. H. Block,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Vol.61, No.4, pp.315-327, 2006.
- [31] 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자아탄력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0권, 제3호, pp.569-581, 2001.
- [32] J. B. Kilka and T. I. Herrenkohl, “A review of developmental research on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Trauma, Violence, & Abuse, Vol.14, No.3, pp.222-234, 2013.
- [33] 이윤주, 신지연,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제5권, pp.111-127, 2006.
- [34] 이은미, 박인진,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1호, pp.3-24, 2002.
- [35] 장휘숙,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43-60, 2001.
- [36] 임효진, 김제철, “중학교 학생들의 성취가치, 자

- 기조절, 학업적응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6호, pp.161-190, 2014.
- [37] H. N. Snyder and M. Sixmund,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1999 National report*, Washington, DC: U. S., 1999.
- [38] B. J. Zimmerman and M. Martinez-Pons,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23, No.4, pp.614-628, 1986.
- [39] A. M. Armstrong,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skill through the modeling and structuring of computer programing,”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Vol.37, No.2, pp.69-76, 1989.
- [40]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41] 유성경, 심혜원,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제16권, 제4호, pp.189-206, 2002.
- [42] 양명희,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43] 김세영,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4]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애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pp.1159-1177, 2005.
- [45] 박순주, 심혜원,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2호, pp.113-135, 2012.
- [46] 김아영, 차정은, “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양육행동 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3호, pp.563-582, 2010.
- [47] 조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5권, 제1호, pp.35-50, 2012.
- [48] 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22권, 제1호, pp.247-279, 2014.
- [49] 김경하,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413-423, 2017.
- [50] 김원, 박은아, 천성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제8권, 제2호, pp.123-142, 2016.

저 자 소 개

김 유 리(Yoo-Lee Kim)

정희원



- 1998년 8월 : 인디애나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6년 2월 : 강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조교수

<관심분야> : 자기조절학습, 교육심리, 정서, 동기